



‘5·18 망언’ 금남로서 규탄대회

16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결기대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시장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장병알·박주선·송갑석·서삼석·박지원·천정배 국회의원, 시민 등이 5·18 공청회 망언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 사죄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김태규 기자

‘70세 노인’ 기준 상향 보완점 많다

“부양인구 줄어 긍정적” 평가 불구 복지사각 우려

광주 65세이상 매년 1만명 증가...정책개선 절실

정부가 법정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자 찬반여론이 뜨겁다.

부양인구는 줄고 생산인구는 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는 반면, 정년 이후 65세 노인층이 복지혜택까지 받지 못한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반대입장도 팽팽하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 등록된 주민등록 전체인구수 145만 9,336명 중 약 13%(18만7,186명)가 65~100세 노인이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65~100세 노인인구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17만2,572명에서 2017년 8,290명이 늘어난 18만862명, 지난해엔 18만 7,186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인구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6년 후인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20%까지 비율이 상승하게 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급증은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광주시의 지난 3년간 65~69세 인구수만 보더라도 2016년 5만8,451명에서 2017년 5만9,718명, 2018년 6만 13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동시에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의 복지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소요도 급격히 증가한다. 광주시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2015~2017년 3년간 99억원이 투입됐다.

복지수요 대상자는 늘고 사회흐름이 변하면서 정부는 노인연령 법정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노인연령 규범이 변했

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민 다수가 65세 정도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재정부담으로 후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시민 김은영씨(34·여)는 “출산율은 줄어든 반면, 노인인구는 늘고 있다”면서 “매년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노인복지에만 쓸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 박영춘씨(50)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며 “일하고 싶은 노년층도 많다. 노인연령 상향이 이뤄진다면 구직의 길이 열리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우리나라 노인의 취약한 실태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 60세 정년 상황에서 복지사각에 놓인 노령층이 많아져 단순히 연령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한혜경 호남대 교수(사회복지과)는 “65세와 100세간 연령대 갭이 커 노인연령상향조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노인의 심리상태와 경제·복지 등 다각적인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65세 정년이 보장된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은퇴연령이 50대 초반으로 빨라지고 있다. 지금의 복지혜택마저 사라진다면 노인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양자 동신대 교수(사회복지학과)도 “일정 기간을 두고 노인연령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당장 6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높이면 사회적 서비스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5년 차이의 여파가 상당하게 될 것이다. 제도를 보완해가며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수영대회 정부 지원 힘 모은다

조직위 내일 서울서 대책회의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140여일 앞두고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17일 광주시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세계수영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경기대회지

원위원회 회의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해 처음 열리는 지원위원회 회의는 이 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광주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조직위는 세계수영대회를 조세감면 특례법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 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평창동계올림픽 등 선례가 있다.

조직위는 각 부처의 국내외 행사에서

수영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후원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는 문제와 경기장 정보·통신 분야 지원, IT 체험관 설치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회 관련 문화행사 지원, 대회기간(7월 12~28일) 폭염 대책, KTX·항공·셔틀 버스 등 이용 편의 제고 등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회의에 앞서 이 총리를 국악인 오정해와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한

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 조형물 제막식에도 참석해 성원을 당부했다.

조직위는 아이돌 스타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역사와 전통, 문화와 사람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전 국민적 관심 속에 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 도시, 평화 도시 광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5·18 가짜뉴스 숨방망이 제재

방통위 7년간 395건 조치 불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지만원의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만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시작된 곳은 대부분 지만원 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였다.

주로 5·18과 북한을 연관 짓거나 5·18 유공자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올렸다.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도표 등을 함께 첨부했다.

이런 식으로 지씨가 올린 글과 사진, 파일 등은 그대로 개인 블로그나 개인 방송으로 옮겨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진과 자막이 임의적인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재편집되기도 했다.

민언련 관계자는 “근거가 전무한 편향적 주장이 무제한 복제·유포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다시 카카오톡 등 개인의 SNS로 공유하면서 왜곡된 정보가 그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렇듯 왜곡된 정보는 쉽게 생산·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5·18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는 모두 39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게시물 삭제는 357건, 유튜브 등 삭제가 어려운 해외 서비스에 대한 접속 차단 37건, 이용정지 1건 등이다.

민언련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의 조사에서만 가짜뉴스가 명백한 142건을 찾아내 방통위에 통신심의의 제기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언련 관계자는 “누군가가 심의를 제기하기 전에 방통위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혐오와 차별, 왜곡된 정보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 5·18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518run.com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제19회 5·18 마라톤대회

일시 2019. 5. 11 (토) 집결 08:00 / 출발 08:50

장소 광주상무시민공원(운동장)

종목및참가비 5.18km, 5.18km빛코스 10,000원 / 10km, 하프코스, 30km 30,000원

접수기간 ~ 2019년 4월 19일(금) ★현재접수중★

접수방법 전화, 팩스, www.518run.com / 0518run@hanmail.net

문의 TEL (062) 720-1014, FAX (062) 720-1020

카카오TV 문의 ID : jndnnews

※ 식전행사에 참가자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합니다.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하는
5.18빛코스 (시각장애체험코스) 문의전화 062) 415-9529

주최 518기념재단 전남매일 주관 JM 스포츠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가보훈처 518구속부상자의 전라남도지부